

“치매 예방 위한 조기진단 나서야”

이영희 무주군의회 의원, 건강한 백세시대 누리도록 행정력 집중 강조

이영희 무주군의회 의원이 인구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치매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희 의원은 지난 15일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치매예방 사회안전망 대책 촉구’ 5분 발언을 하며 치매환자 증가를 우려하고 치매 조기 검사와 적극적 사례관리를 이영희 의원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 수준에 도달했다. 국내 치매환자 실종 신고는 연간 1만건이 넘고 이 가운데 100여명이 사망자로 발견되고 있다”며



“무주군 전체 인구의 38%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고 등록된 치매환자는 9월 기준 1,150명으로 치매로 인한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우려했다.

이영희 의원은 “노인들은 치매를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다. 근래에는 65세 미만 청년 치매환자를 일컫는 ‘초로기 치매’ 환자도 나오는데 초로기 치매는 노인성 치매보다 진행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며 치매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영희 의원은 이어 “무주군은 2018년부터 치매안심마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17개 마을 주민들이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접하고 방문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치매

진단검사를 위해 주민이 치매안심센터에 먼저 방문하고 의심자에 대해서만 추가로 가정방문 검사를 하고 있다. 유선상으로 치매가 의심될 경우 의료진이 가정에서 방문해 전문검사를 실시하도록 개선하면 훨씬 적극적인 치매 예방 활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희 의원은 “치매는 불치병이 아니며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다. 주민들이 치매에 대한 불안함을 거두고 검사에 적극 참여할수록 치매예방율은 높아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전교육과 예방활동을 강조하기 위해 5분 발언에 나섰다”며 행정이 적극적으로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이 치매 없는 건강한 백세시대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은 18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무주군 스마트팜 활성화와 단지 조성 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스마트팜으로 농업경쟁력 키운다

무주군 스마트팜 활성화와 단지 조성 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가져

무주군이 고령화와 기후변화 속 농업경쟁력 확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스마트팜 육성’을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주군은 18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무주군 스마트팜 활성화와 단지 조성 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스마트팜 활성화 관련 용역을 추진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관한 용역을 진행한 지역농업네트워크 울그롭건축사무소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해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군은 이날 최종보고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스마트팜 육성 사업이 기간 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무주군 스마트팜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무주형 스마트팜 생산·유통·소비 로드맵과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지난 3월부터 전문가 간담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미래 무주농업의 환경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스마트팜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이 안에는 무주형 스마트팜 확대 전략과 스마트팜 작목 및 유통 마케팅 전략, 전문인력 육성 지

원 전략 등이 포함돼 기대를 키우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형 스마트팜 관련 용역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작목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는 마음가짐이자 무주농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기반”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무주에 맞는 스마트팜 도입과 정착, 활성화 그리고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가동을 통해 농업의 편의성과 생산성,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7월부터 6개월간 추진했던 ‘무주군 스마트팜 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무풍면 중산리 일원에 경영실습장 1동(5,640㎡)과 임대형 온실 4동(32,052㎡), 육묘장 2동(5,352㎡) 등 스마트팜 온실 7동(43,044㎡)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용역을 통해 스마트팜 단지 조성 계획과 재배 품목을 비롯한 활용 방안 등을 구체화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임대형 스마트팜의 재배 품목은 생산량과 재배면적, 기후 조건, 소득, 소비량 등 작목별 시장분석을 통해 ‘여름 딸기’로 선정했으며 2025년 1월부터는 교육생(귀농 청년)을 모집해 2년 과정의 ‘고령지 스마트팜 창업육성’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출향민 대상 귀향 프로젝트 진행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진주)는 18~19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진안군 출향민을 대상으로 귀향 프로젝트(이하 팸투어)를 진행한다.

이번 팸투어는 지난 11월 3일~4일 진행된 1차 팸투어에 이어 2차로 열렸으며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화합 사례, 귀농 선도농가 방문, 홍삼사과 체험 등 진안군 출향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열렸다.

김진주 센터장은 “진안군은 융합택

건설로 인해 많은 마을이 수몰됐고, 1만 2천여명의 이주인이 발생한 아픔이 있는 지역이다”며 “특히 전춘성 군수의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출향민 대상 귀향 프로젝트를 실행해 행정과 소통하는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될 수 있어 기쁘고 팸투어를 통해 출향민이 고향으로 귀농귀촌을 고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건전한 비판 수용·군민 기대 부응할 것”

황인동 무주군의회 의원, 의회 대한 곡해 선 굵고 협치 촉구

황인동 무주군의회 의원이 최근 무주군의회에 무주군 발전을 향한 진심 어린 의정활동이 곡해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황인동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더 고민하겠습니다’ 제하의 5분 발언을 하고 11월부터 2개월 동안 언론과 군민, 공무원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황인동 의원은 “비판의 목소리를 종합해보면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에 나오는 질책이라고 생각한다. 그 첫째가 절박함



을 가지고 추진한 일본연수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큰 위기 속에서 무주군의 미래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군수와 의원이 함께 다녔던 일본 연수는 결코 의의성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집행부와 놀러 갔다 온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향후 연수를 하면 반드시 연수보고회나 토론회를 통해 무주군 발전에 접목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인동 의원은 또한 “모 언론사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무주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상실했다며 조선의원의 패기와 열정이 사라진 맹물감사라고 평가했다. 분명 군민의 기대의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았을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원의 모습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인동 의원은 선거구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의원이 해야 할 말을 못 한다는 지적에 대해 단호히 거부했다. 황인동 의원은 “발정적 지적과는 다르게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서슴지 않고 나온 것은 문제”라며 “의원들의 지적이 부당하다면 당당히 문제를 제기하라. 의원의 지적이 맞다면 어떻게 개선할지 타율하고 고민해 집행부와 의회가 발전적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황인동 의원은 “무주군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와 함께 정부의 교부세 삭감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집행부가 의회가 더 머리를 맞대고 무주군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 의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해 본인부터 더 노력하겠다”며 대화를 강조하고 5분 발언을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HACCP 2개 유형 추가 인증

진안군은 군에서 직영하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지난 14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과제주스, 인삼홍삼음료 2개 유형을 추가 인증 받아 총 6개 유형에서 인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은 가공사업장의 원료의 입고, 제조, 가공 등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 안전관리기준을 수립해 위해요소 관리 여부를 중점적

으로 평가하여 인증해주는 제도다. 진안군은 이번 인증으로 과제주스, 인삼홍삼음료가 안전한 가공품을 증명, 판로확대와 농업의 소득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